

로컬리더스

군산시, 7월 하수도 사용료 인상

군산시는 하수도 사용료를 오는 7월 고지분부터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산시의 경우 하수처리 원가는 톤당 1736원인데 반해 사용요금은 평균 327원으로 현실화율이 18.9%에 그쳐 전국 평균 38.3%와 전북 평균 27.2%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재정회보가 어렵고 올해부터는 하수도 사업이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어 독립채산제 회계원칙으로 운영방식이 전환됨에 따라 하수행정의 발전과 재정건전화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하수도 사용료는 전월대비 평균 19%가 인상되며 업종별 요금은 가정용은 톤당 230원에서 270원으로 4원, 일반용은 330원에서 390원으로 60원이 오르게 된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 청암산 바람개비공원 조성

군산시 옥산면은 청암산 북에 수려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바람개비 공원을 아름답게 조성했다.

바람개비공원은 폐도보블록에 페인트를 칠해 '구슬피길 옥산' 문구와 하트모양을 제작했으며 400여개의 바람개비를 꽂아 장관을 만들었다.

청암산 입구에도 폐도보블록으로 태극문양의 화단과 벤치를 만들어 청암폭장을 조성했다. 또한 청암산으로 올라가는 길가에 루드베키아 1만여본을 심어 꽃길을 조성해 청암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상반기 공직자 퇴임식 개최

군산시가 공직자들의 영예로운 공직생활 마감을 축하하는 2016년 상반기 퇴임식'을 개최했다.

시는 29일 시청 대강당에서 퇴직자 21명과 가족,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퇴임식을 열었다.

이날 퇴임식은 축하영상 상영에 이어 공로패 수여, 축하,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퇴직자들은 군산시 발전을 위해 함께 뛰었던 후배 공무원들과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경찰 중앙지구대 여성범죄 예방 주민 공감 치안활동 전개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는 여성범죄 예방을 위해 주민 곁에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주민이 원하는 예방활동으로 주민이 공감하는 주민과 소통하는 치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앙지구대는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이에 대한 예방 일환으로 체계적인 홍보 전파를 추진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주민의 곁에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중앙지구대는 여성범죄 예방에 직원이 발 벗고 나서 홍보활동에 앞장서고 여성들의 범죄 피해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추진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익산=장양원기자

신임 군산해수청장에 류종민 사기관

신임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 류종민 사기관(57)이 선임됐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이 같이 사기관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류 청장은 목포해양수산청 항무과장과 인천청 경인해양사무소장,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설추진기획단기획총괄과장 등을 거쳤다.

또 지난해 세월호 후속조치 총괄 T/F 총괄지원본부에 이어 세월호 인양추진단에서 활동한 바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하림 삼계탕 중국 시장 진출

최대 유통그룹 쑤닝과 수출 계약 체결 첫 수출물량 선적

(주)하림은 중국 최대 유통그룹인 쑤닝과 자사 삼계탕의 중국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첫 수출 물량을 29일 선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하림은 2014년 국내 축산물로는 최초로 미국 수출에 성공한 데 이어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까지 국내산 삼계탕을 수출하는 유일한기업체로 한식 세계화의 앞배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

중국 난징과 장수에 본사를 두고 있는 쑤닝은중국 내 70개 도시에 1,60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홍콩과 일본에도 온라인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내 Top 판매 회사 중 하나 연매출이 약 50조에 이르는 중국 1위 민간기업이다. 하림은 이번 협약으로 한국 전통 맛을 그대로 살린 자사의삼계탕(레토르트 방식, 상온 보관)을중국 상해, 북경, 광주, 심천 등 주요 도시를 거점으로 주요 백화점 및 프리미엄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동시에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쑤닝의주문을 받아 첫 선적한하림 삼계탕은 중국에 도착하는 즉시 중국의 검역절차를 거쳐 현지 판매될 예정이다

한국을 찾는 중국인들 사이에 삼계탕은 인기가 높고 한국 드라마의 영향으로 삼계탕이 중국인들에게 생소하지 않기 때문에 하림의 안전한 생산 시스템과 쑤닝과의파트너십이 더해지면 충분히 중국 내 삼계탕 열풍을 일으킬 수 있다고하림은 자신하고 있다.

하림은 1995년 일본에 처음 삼계탕을 수출한 이래 홍콩 대만 싱가포르, 호주 등으로 수출 시장을 확대해 왔으며 지난 한 해에만 320만달러치를 수출 이는 우리나라 전체 삼계탕 수출액 (900만달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양이다.

이번 중국 수출은 2006년 한국 정부가 한국산 삼계탕 제품 수입 허용을 요청한 이래 10년 만에이뤄진 것으로 지난 해 10월 양국 정부 간에 수출 위생 및 검역·검사 조건을 최종 합의한 후 실무적인 절차를 걸쳐 8개월 만에 첫 선적이이뤄진 것이다.

(주)하림 유통사업부 박준호 부부장은 "하림이 만들고 세계인이 함께 한다는 한식 세계화의 사명감이 한국의 삼계탕이 선진화도록 다양한 관측행사를 펼치고 있다. /익산=장양원기자

에 하림 삼계탕을 올리는 것은 가장 한국적인 맛으로 한류 확산에 기여하고 K-Food의 세계화에 일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하림은 우리나라 전통 삼계탕에 대한 유래와 제조공정, 조리법과 같은 정보를 총망라한 글로벌 삼계탕 웹사이트(www.k-sanggyetang.com)도 운영하면서 일찌감치 삼계탕 세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국어로 서비스되는 이 웹사이트에는 삼계탕 조리법을 외국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동영상도 게재되어 있어 우리나라 삼계탕에 대한 우수성과 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에도 지난 28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린 '2016 뉴욕식품박람회'에 참가하여 하림 삼계탕을선보였으며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삼계탕 시식 행사도 진행하는 등, 미국 시장에서 한국의 삼계탕이 선진화도록 다양한 관측행사를 펼치고 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2개 점검반 구성 폐수 다량 배출업소·비밀배출구 설치 무단방류 등

군산시는 장마철을 맞아 환경오염행위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공공수역에 환경오염 물질을 유입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를 위해 시는 2개 점검반을 구성 운영하며 단속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접 지자체와 교차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폐수 다량 배출업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오염물질 장기보관·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

장을 대상으로 폐수 비밀배출구 설치, 폐수 무단방류, 가축분뇨, 폐기물 등 공공수역 유출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특히 집중호우로 불어나는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기 위해 강우 시 하천 및 산업단지 주변에 대한 순찰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환경오염 물질을 고의·상습적으로 배출하는 환경사범을 적발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군산=문정곤기자

또한 위반 업소의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위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정기호 환경정책과장은 "행정인력만으로 오염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감시에 한계가 있으므로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할 경우 관련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오염행위는 군산시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계(454-3400) 또는 시청 당직실(454-4222)로 신고하면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원광대, 국가식품클러스터 R&D 보유기술 설명회 개최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회회중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장, 이영미 원광대 산학협력단장 송문규 원광대 LINC사업단장을 비롯한 국가식품클러스터 및 산학연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7일 '국가식품클러스터 R&D 보유기술 설명회'를 개최했다.

원광대 산학협력단이 주최하고, LINC사업단과 원광식품산업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설명회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가족회사에 대한 R&D 보유기술지원과 함께 소스산업화센터 설립에 따른 산학연관 협업의 의를 위해 마련됐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축사에서 "국가 식품클러스터는 익산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며, "소스산업화센터 설립과 함께 국가식품클러스터 성공을 통해 익산시가 6차 산업과 창조경제

의 메카로 비상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설명회에서는 원광대 한약학과 홍승연 교수를 좌장으로 관대영 한국식품연구원 박사의 '산업화 이후 시대 식품산업 방향을 주제로 한 기초강연'과 임한경 익산시 사업지원과장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현황',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능성평가지원센터 이현순 박사의 기능성 식품개발을 위한 원료표준화 및 기술, 국가식품클러스터 패키징지원센터 윤찬석 박사의 '식품포장재 안정성평가 기술소개', 국가식품클러스터 품질안전지원센터 조중상 연구원의 '식품의 맛과 향 분석기술 소개'에 대한 주제발표가 연이어 진행됐다.

특히 원광대 소속 교수들의 산학협력과 연계한 R&D 성과 발표도 이어져 눈길을 끌었으며, 한약학과 정현주

교수는 '천연물의 지표성분 분석과 그 가능성 연구'를 식품생명공학부 이창주 교수는 '저소화성 변형 전분 개발 및 가공적성'을, 식품영양학과 김희경 교수는 '이산화염소를 이용한 식품살균기술의 개발에 대한 성과'를 각각 발표했다. 또한, 식품영양학과 최일숙 교수가 '식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서 패키징에 이르기까지의 관능평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식품생명공학부 조인희 교수는 '다각각 상호작용의 이해를 통한 식품의 향미 특성 연구'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한편, 원광대 산학협력단과 LINC사업단, 원광식품산업연구원은 지속적인 기업지원 프로그램과 산학교육 사업을 통해 지역기업에 대한 애로기술 및 우수인재 양성으로 산학협력 성과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익산=장양원기자



제일건설, 국가유공자 노후주택개선

익산·군산시 2천여만 원 들여 주거환경 정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한주택건설협회의 주관으로 (주)제일건설(대표이사 윤여용)이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주거개선사업에 참여하여 익산시와 군산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황모(88), 장모(86)씨 두 가구에 주택개보수를 지원했다.

전북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우실)의 대상자 추천을 받은 (주)제일건설은 두 가구에 2천여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주택(방 부엌, 거실, 화장실, 지붕)의 각종 시설물을 수리하고 외벽, 내부단열 및 방수공사를 진행하여 노후주택이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최근 전반적인 사회분위기의 침체와 어려움에도 (주)제일건설의

자발적인 참여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이 깨끗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국가유공자 주거여건 개선사업을 통해 지난 1994년 이후 23년 동안 약 163억여원을 들여 노후주택 1,522동을 무료로 보수했다.

한편 전북서부보훈지청은 노인성 질환이나 상이해 등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보훈대상자의 가정에 보훈섬김이를 파견하여 재가복지서비스 및 의료용품 무상제공, 민간장기요양급여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중 참전 복합질환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은 특별히 복원기금에서 후원하고 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선유도해수욕장 개장전 최종 현장점검

군산시가 선유도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29일 최종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날 현장점검은 김인원 부시장 주재로 7개 관제부시장과 함께 도서 내 음식 및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

또 백사장 및 선착장 주변 청소상태, 도르넨 적치물, 각종 편의시설 등 관공분야부터 시설분야까지 개장에 필요한 모든 분야를 세세히 살펴보고다.

특히, 지난해 7월 새만금 해남이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공중화강 체험시설 '선유 스카이런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계 종사자들에게 안전에 각별한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부분개통

과 더불어 많은 방문객들이 선유도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안전장비와 공무원·민간안전요원·해상구조요원 등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에 대한 점검을 함께했다.

이와 함께 선유도관광진흥회, 의용소방대, 이장 등을 중심으로 한 선유도 주민들은 주 3회 방역소독 실시와 제초작업, 지역문화재 주변정비, 꽃바스비치 등 행사와 발맞춰 관광객 맞이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한편 선유도해수욕장은 오는 7월 2일 개장을 시작으로 8월 15일까지 45일간 운영될 예정이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해수청,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 시행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남광률)은 다음달 1일부터 전 세계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총중량 검증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국제협약을 반영한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이 통일되기에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제란 선박에 컨테이너 화물을 선적하기 전 선사에 컨테이너 총중량 정보를 제공해 과잉선적으로 인한 선박안전도 미확보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이 제도에 따르면 선박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총중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된 화물 총중량 정보가 오차범위(±5%)를 초과할 경우 해당 컨테이너의 선박적재가

불가하다.

총중량 검증 적용대상은 수출 컨테이너 화물로 하주는 컨테이너 총중량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선적선박의 집안 예정 24시간 전까지 선적에게 제출해야 하며, 근거리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선적하는 경우에는 선적선박 집안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단, 공 컨테이너와 환적 컨테이너는 제외된다.

군산해수청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해운물류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선박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업·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삼학동 주민자치위원회 발대식 개최

주민자치위원회들의 자진사태 등으로 갈등을 빚던 군산시 삼학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발대식을 갖고 새롭게 출범했다. 삼학동(동장 김선자)은 지난 24일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삼학동 주민자치위원회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삼학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전 위원장의 임기 만료로 지난 5월 27일 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참석 위원 9대 1로 자진해산을 가결해 해산되어 주민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듣기도 했다. 이에 삼학동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후 지역 내

순은 인사를 발굴하고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각계각층의 인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 발대식을 가졌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도 새롭게 구성된 자치위원회를 물심양면 지원하기로 의사를 표명하는 등 삼학동 발전에 동참할 것을 밝혔다.

위원장으로 추대된 채관석 위원장은 "주민들을 위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와 주민회합, 지역발전 등을 위한 주민자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